

“책 읽는 사회가 곧 국가 경쟁력” 『출판에 대하여』 발간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한국 출판정책의 흐름과 산업 구조를 최초로 집대성한 『출판에 대하여』가 발간됐다. 그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한국 출판정책을 이해하는 교과서이자 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서로 주목받는다. 저자인 김동혁 동문(생물학·신문방송학 1996)은 서울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출판’을 학문적으로 연구·교육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출판정책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양적 성장에서 문화적 가치 확산으로 지평을 넓혀왔다. 1970년대에는 ‘유신독제’ 체제하에서 불량·불법 출판물 단속이 이뤄졌고, 1980년대에는 출판 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대하소설의 시대’로 불릴 만큼 출판업이 전문화 단계로 나아갔다.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 체제 변화와 맞물려 문화가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대 문화정책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2000년대에는 MBC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를 계기로 독서 열풍이 일었고, 당시 추진된 ‘출판문화산업 5개년 계획’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제6차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현재 한국 출판산업은 양적 성장이라는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6만 4천 종의 도서가 발행됐고, 연간 한 종이상을 출간한 출판사는 약 9천 개에 이르는 등 생산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를 두고 김 동문은 “(출판업이) 지속적으로 ‘위기 산업’으로 언급돼왔음에도 영세한 구조 속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온 점은 분명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독서 인구 감소다. 김 동문은 “지금은 책을 읽는 사람만 읽는 구조”라며 “다독자와 비독자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서 인구 감소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미



책의 저자인 김동혁 동문은 “독서 인구 감소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사진=이지수 기자)

래 출판정책의 방향으로 ▲출판의 경계 확장과 사람 중심 출판문화 진흥 ▲출판유통 혁신 ▲독자 개발과 책문화 확산을 제시한다. 특히 독서 인구 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K-북

의 해외 진출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아울러 미래 출판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동문은 “이미 양서를 꾸준히 읽는

독자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성찰하며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독자의 자발성에만 기대기보다 독자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출판산업과 정책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책은 출판산업 예산과 5개년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판정책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출판계 보호를 위해 현행 도서정가제를 ‘완전 도서정가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판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판에 대하여』는 한국 출판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짚으며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묻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지적·정보적·의식적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준비하는 일이다. 다가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우리 독자들도 책 한 권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봄에 온佳人(佳人), 그대는 경희인

경희기록관 이금화

경희의유산 ⑩ 『가곡<목련화>』

코끝을 스치는 바람 끝에 아직 가지 않은 겨울의 한기가 느껴지는 초봄. 별이 잘 드는 본관 앞 목련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우리 대학을 상징하는 꽃으로 목련을 정한 것은 1970년 5월. 하지만 교화 목련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은 아마도 가곡 ‘목련화’일 것이다.

‘목련화’는 1974년 5월 우리 대학 설립자 조영식 박사 작사, 음악대학 김동진 교수 작곡으로 탄생했다. 원래 이 곡은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만든 ‘경희 칸타타 - 경희 사반세기 송가’의 2부 ‘선인송(仙人頌)’ 첫 부분에 삽입된 곡이다.

김동진 교수로부터 작사를 부탁 받은 조영식 박사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나는 시인이 아니므로 나보다 시를 더 잘 쓸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둘째, 내가 설립한 학교의 송



1975년 교시탑 옆 목련 나무 식수 모습(좌), ‘경희 칸타타’ 작사·작곡 소감을 전한 1974년 5월 30일자 대학주보(우)

가를 나더러 쓰라니 아무리 사실대로 쓴다고 해도 결국 자화자찬이 될 것 같아서’였다. 그래도 김 교수는 뜻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 작사를 부탁했는데, 그 이유는 경희 설립 사반세기를 축하하는 칸타타인 만큼 그 가사에는 대학을 설립하고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의 의지와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뜻을 굽힌 설립자가 업무 짬짬이 작사를 진척시켜 갔고,

목련화 부분의 가사는 1973년 7월 출장길에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 안에서 완성했다고 한다.

1974년 5월 30일, 개교 25주년과 크라운관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희 칸타타가 처음 연주돼 음대 합창단이 ‘목련화’를 불렀다. 며칠 후,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한국작곡가회 주최로 열린 신작 발표회에서 당시 음대 강사였던 엄정행 명예교수가 ‘목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련화’를 독창으로 발표했다. 국민 가곡 ‘목련화’의 탄생이었다.

“추운 겨울 해치고 온 봄길잡이 목련화는 새 시대의 선구자요 ... 함께 피고 함께 지니 인생의 귀감이다.”

가사에서 보듯, 목련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의 힘을 상징한다.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봄을 부르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전쟁이라는 험

난한 시대를 넘어 1970년대 안정과 성장의 시기로 접어든 경희가, 노랫말처럼 선구자의 모습과 하나됨의 열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염원이 곡에 담겨 있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선 강인함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너머에 존재하는 너그러움, 하나됨의 미덕도 필요하다. 경희는 이런 정신세계와 함께 8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